데스크 시각

어느 예술 애호가에 대한 헌사

김미은
여론매체부장·편집국 부국장

"아빠 친구분들이야."

검은 상복을 입은 그의 아내가 말했다. 일행은 그녀를 껴안은 채 울음을 터트렸다. 영정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다. 믿기지 않은 현실이었다. 그가 좋아했던 영화 속 한 장면, 연극 속 한 장면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오랫동안 문화부 기자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글을 썼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들과 피땀 어린 결과물이 주된 글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그걸 감상하고, 감동받는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폴시케'라는 시민이 남긴 흔적

그런 점에서 'polsike(폴시케)'라고 불렸던 그는 내가 아는 한, 광주에서 가장 열성적인 향유자였다. 무엇보다 예술가들을 응원하고, 늘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그는 명예퇴직 후 가장 먼저 광주일보를 구독했다. 문화면에 실린 공연, 전시, 강연 관련 세세한 정보을 얻고 싶어서였다. 그는 문화계의 유명인사였다. 클래식, 연극, 무용 등 장르를 가리지 않았고 미술관도 자주 찾았다. 20년도 더 전에 내가 처음 그를 만난 광주극장 역시 그의 아지트였다. 스무 살이 넘는 나이 차였지만 한번도 그 간극을 느끼지 못했다.

이 글을 쓰며 오랜만에 '벌써'를 뜻하는 전라도 방언에서 이름을 따온 그의 블로그 'polsike의 제멋대로 영화 이야기'에 들어가 봤다. 153만 명이 다녀간 블로그에 적힌 2885개의 글은 광주에서 열렸던 숱한 문화행사의 아카이브 창고였다. "선우예권의 연주에 감동하여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늘 솔직한 감상평을 내놓는 그와 작품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즐거웠다. 호불호가 갈렸던 봉준호 감독 작품을 제외하면 취향도 비슷했다. 워낙 다양한 공연과 영화를 섭렵하는 그 덕에 놓칠 뻔한 작품을 관람한 적도 많았다.

그는 무엇보다 작품에 감동을 받으면 그 마음을 예술가들에게 '꼭' 전하는 사람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의 그가 공연 후 로비에서 출연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보고는 했다. 꽃다발을 전달하고, 단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그가 애정을 줬던 지역 단체들은 많다. 많이 아꼈던 극단 '얼·아리'가 '발톱을 깎아도'로 전국 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때는 누구보다 기뻐했다. 임지형, 김미숙 교수의 무용 작품도 빠짐없이 관람했다. 구자범 지휘자 시절부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응원군이었고, 광주시립발레단의 열혈팬이었다. 그는 아마도 광주의 예술가들이 가장 사랑했던 관객이었을 것이다.

그는 사랑하는 작품을 널리 알리는 자발적 홍보대사이기도 했다.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고차분 작가가 대표적이다. 2019년 첫 대면한 그림에 대해 그는 "작품들이 반갑게 내게 눈짓을 하며 말을 걸어왔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며 감상했다. 전시회에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라고 썼다. 이후 고 작가의 작품을 여러 점 구입했고, 블로그에 많은 글을 올렸다. 문정현 감독의 다큐멘터리 '할매꽃'에 감동받았던 그는 문 감독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나주 추어탕집 홍보에도 열심이었다.

예술 생산자이기도 했던 그는 칠순을 맞아 풍경 사진전을 열었고 시와 사진을 함께 모은 책 '자자애애'를 펴냈다. 누군가는 이 책에 대해 "어떤 곳에는 소년이, 어떤 곳에는 소녀가, 또 어떤 곳에는 인생의 선배가 계신 듯하다"고 썼다.

지역 예술가들의 응원군

뭐니뭐니해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공간은 광주극장이었다. 개관 기념일 즈음이면 언제나 그의 이름이 적힌 화분이 놓여 있었고 선물을 증정하는 자체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이명세 감독의 '형사 dualist' 등 좋아하는 작품 홍보를 위해 코스프레도 마다하지 않았다.

광주극장에 붙어 있는, 20년 전 빛바랜 광주일보 기사 속에서 웃고 있는 그의 모습에 아련해진다. 극장 측은 올해가 가기 전 그를 기억하는 작은 행사를 기획중이다. 그가 광주극장에서 열 다섯 번이나 보며 환호했던 영화 '헤드윅'을 함께 보며 서둘러 가버린 그를 떠올리면 좋겠다. 모든 예술과 지역의 예술가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했던, 평범한 이가 남긴 흔적들을 되새기면 좋겠다. 지역 문화계를 풍요롭게 하는 건 수많은 '폴시케'들일 터다.

그에 대해 긴 이야기를 썼지만 가장 깊게 남아 있는 건, 가슴 뭉클했던 이 장면이다. 그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자가용 트렁크에 늘 박스나 신문지 더미를 싣고 다녔다. 그러다 멀리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어르신들이 보이면 얼른 내려 차 트렁크를 열고 박스를 할머니, 할아버지의 리어카에 잔뜩 실어드리곤 했다. 떡이며 먹을거리도 함께.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mekim@kwangju.co.kr

은펜칼럼

정부의 역사 인식을 우려한다

임명재
약사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백번 양보를 해서 그 오염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 정부가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도쿄전력이라는 전력회사의 문제인데도 말이다. 오염수의 방류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을 제고하지 못한다. 잠재적인 피해가 우려될 뿐이다. 최소한 현 정부가 친일적인 외교노선을 갖고자 한다면 반대만 안할 뿐 적극적인 찬성이나 홍보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함에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도쿄전력을 대변하고 있다. TV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오염수의 안전을 홍보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와 같은 친일적인 정책 노선에 이어 이번에는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치우고 거기다 백선엽의 흉상을 세우려고 한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참으로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정치행태라고 보여진다.

홍범도 장군이 지휘한 청산리전투 등은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주고 우리 스스로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한 것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삶을 포기하고 오로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의병들이 모여서 당시 강력한 일본군을 치밀하게 수 일간 반복해서 치욕을 선물한 전투를 이끌었던 장군이었다. 이런 민족의 영웅에게 감히 몇 사람의 생각으로 무례를 저지르는 이 정권의 근본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일제 식민지의 억압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일제에 저항했다. 함께 고통을 받았던 아시아인들도 일본과 다양한 방법으로 싸웠지만 우리의 기상은 그 어떤 아시아인들과 비교해서도 강력했다. 조선시대 말기, 근대화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일제에게 합병되는 바람에 우리 민족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세우려는 의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심지어 무정부주의자까지도 각각 자신들이 받아들인 이념을 기반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다.

홍범도 장군은 당시 힘이 약한 중국보다는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본군과 전쟁을 하려 했던 만큼 사회주의화 된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장대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였다고 주장하면 왜 러시아 공산주의 정권이 홍범도 장군의 직을 박탈하고 군대를 해산시켜 마치 귀양 보내 듯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켰겠는가. 홍범도 장군은 이념보다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파괴하고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 다음의 세상은 또 다른 문제였을 것이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김구 주석은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했고,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자 했고, 이승만은 미국에서 그리고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에서 투쟁했다.

홍범도 장군 유해는 노태우 정권에서 당시 공산주의 국가였던 구 소련과 협의하여 송환을 추진했다. 마침내 문재인 정부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공군의 호위를 받으며 귀환해 우리 땅에서 영원의 안식을 찾았는데 이 정권에서 모멸감을 주다니 역사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일방적인 결정 과정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청산리에서 독립군 지휘관으로 일본군을 사살한 홍범도 장군은 깍아내리고 일본군의 앞잡이였던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을 사살한 백선엽을 치켜세우는 이 정권은 아마도 최악의 정권이 될 것이다. 오늘의 오만함으로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기 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공개해야 하는 이유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최근 광주시의회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공개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 전까지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 최근 광주 도심 상업지역에 30~40층대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이 모든 책임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것인가. 적절한 도시계획 심의 기준이나 지침이 없거나 미흡한 것에 사실 더 큰 책임이 있다.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일부 책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표 선수로 인식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비난을 대부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분명 억울할 수도 있지만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는 밀실 운영으로 알려졌다. 업자에게 끌려다니고 행정의 눈치를 보는 위원회라는 오해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한꺼번에 불식시키는 좋은 대안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공개다.

위원회 공개에는 회의 공개와 회의록 공개 두 가지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 제113조 2항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조례에 회의 1개월 후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프라이버시 보호다. 이 조항은 논란이 되지 않는다. 이름을 가려서 공개한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현저하게' 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들이 공개되면 실제로 투기를 유발할까. 필자는 지난 해 말까지 6년간 광주시 도시계획 위원으로 활동했다. 필자가 다뤘던 수백 개의 안건중에서 투기를 유발할 만한 안건은 기억에 없다.

'현저'하기는 커녕 '보통' 수준의 투기를 유발할 거라고 예상되는 안건도 없었다.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안건이 '현저하게 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는지' 제시하라. 정말로 그런 우려가 있는 안건이라면 건별로 비공개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모든 도시계획 안건을 '투기유발'을 핑계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결정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말고는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공개되고 있는 회의록은 너무 축약되었거나 생략되어서 줄거리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의회에서 제공하는 회의록 정도면 좋겠다.

회의 공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자체의 재량에 맡긴다는 뜻일 거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외국의 도시들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밀리에 운영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런데 광주도시계획조례에는 회의를 비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심지어는 누설금지 조항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광역단체 중에서 광주시와 울산시 뿐이다.

어떤 이는 회의가 공개될 경우 발언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광주 도시계획 위원은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 회의가 공개된다고 해서 발언이 위축될 정도라면 공모에 응하지 않으면 된다. 소신 발언에 제약이 따른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소신 발언이란 회의가 공개돼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도시계획 결정은 토지 소유자나 도시 미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권한에 걸맞게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 다른 도시도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른 도시가 그렇다고 해서 광주가 공개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다른 도시들은 부결 또는 재심율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해서 광주는 일단 상정되기만 하면 반드시 통과된다는 오명도 있다. 회의 공개는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도시계획위원회 공개는 시대적 요청이다. 위원회에 대한 불신은 공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다. 학식있고 양심있는 대다수 도시계획 위원들이 자원봉사에 가까울 정도로 공익 증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도 괜히 오해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社說

특산품 판로 지원…다양한 매체로 확대해야

고물가 속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농어민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겹쳐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인 전남 어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가 특산물 판로 지원과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전남도는 무엇보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비 촉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을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전략으로 소비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도내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 대상을 대폭 늘리고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비비 200억 원을 투입해 카카오 등 온라인몰과 서울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에서 수산물 할인에 나서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8일까지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에서 전남 특산품 판매도 시작한다. 신안 곱창김을 시작으로 담양 찰떡, 해남 고구마감자빵이 생방송을 타고 소비자를 만난다. 홈쇼핑 판매 지원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홈앤쇼핑 입점부터 판매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1년째인데 광주·전남에서만 45개 업체가 입점해 억대 판매 실적을 올리는 업체가 등장할 정도로 인기다.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신청 기업의 17%만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장은 홈쇼핑 지원 업체를 늘리고 원전 오염수 방류로 힘든 수산업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유튜브 등 소비 유통 채널이 다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홈쇼핑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채널을 확대해 전남 특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할 것이다.

학업·알바 병행하는 대학생 지원책 강구할 때

주경야독(晝耕夜讀)은 '낮에 농사짓고 밤에 글을 읽는다'는 의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함을 일컫는다. 그런데 요즘은 '주경야독'대신 '주독야경'(晝讀夜耕)이라 해야 할 판이다. 대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건의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고충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구인구직·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에서 최근 전국 대학생 5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명중 9명(89.8%)이 2학기 개강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계획을 세운 이유로 '생활비 및 용돈을 벌기 위해서'(61.9%)와 '유학·여행·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한 목돈 마련'(35.9%)을 꼽았다. 대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고물가 속에 학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학기 중에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주독야경'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 1319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에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세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부모로부터 월 평균 54만 원가량을 지원받지만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물가에 주거비(월세)와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감이 가중되면서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와 대학 측은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대폭 낮추거나 대학 기숙사 확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고물가와 취업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청운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부추의 실종

도심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는 필자에게 좋아하는 작물이 무엇이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일 먼저 '부추'를 꼽는다. 지역에 따라 솔이나 정구지, 부채, 부초 등으로도 불리는 부추는 다년생 초본으로 다른 채소와 달리 한 번만 씨를 뿌리면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 계속 자라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까지 풍부해 인기 있는 작물이다. 3~9월이 제철로 화분이나 마당 텃밭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으며, 비닐하우스에서 대량으로 생산돼 우리에게 친근하다.

이런 터라 필자 역시 이 작물을 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무난하게 재배해왔다. 한데 지난 여름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다. 잦은 장마와 불볕더위로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다 오랜만에 찾았더니 얼마 전까지 잘 자라던 부추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농부의 말로 '녹아 없어진' 것이다.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전문가들에게 물으니 이번 여름 극한의 장마와 무더위가 부추를 고사시켰고, 말라버린 작물이 부서져 사라졌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지구 온도 상승에서 비롯된 이상기후가 원인이라고 했다. 멀게만 느껴졌던 기후변화가 도시 농부에게도 가까이 왔음을 감지하는 순간이었다.

최근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산불·폭우·가뭄·폭염·폭설·전염병 등 재해는 지구 온도 상승에서 비롯된 이상기후가 원인이라고 한다. 올해 6월에 공개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논문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지구 온도는 0.06도 상승했다. 산업화 이전 시대에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는데 약 1000년이 걸렸다고 하니 현재 기후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여름 무더위를 우리 선인들은 '대서(大暑), 염소 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으로 표현했다. 단단하기로 이름난 염소 뿔도 더위에 녹아내린다는 의미다. 폭염과 폭우의 반복, 극단과 극한이 난무하는 시대라지만 부추의 실종을 목도하고 보니, "지구의 종말을 막아달라"는 절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든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전 남 본 부 220-068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